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. 10. 27.(월)
(사진 15:00 이후)

조달청-한국수자원공사, 물·기후테크 혁신제품 '해외진출'에 힘모은다.

- 물·기후테크 분야 혁신제품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
-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위한 「수출선도형 시범구매」 협력으로 수출 교두보 마련

조달청(청장 백승보)과 한국수자원공사(사장 윤석대)는 27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'물·기후테크 분야 혁신제품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'을 체결했다. <사진 별첨>

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의 공공조달 역량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물·기후테크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△ 물·기후테크 분야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(이하 '해외실증') 활성화 △ 혁신제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판로개척 △ 시범구매 이후 혁신제품의 후속 수출을 위한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.

백승보 조달청장은 “혁신제품 해외실증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추가 수출로 연계될 수 있는 확실한 수출 지원 제도”라고 강조하며,

“앞으로 두 기관이 협력하여 물·기후테크 등 미래 신산업 혁신제품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무대로 진출하고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겠다.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판로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봉규 (042-724-6151)
		담당자	사무관	장익환 (042-724-7564)

